



E3G

KDB¹산업은행



- > **설립:** 1954년
- > **사명:** 한국의 금융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²
- > **총 자산:** 263조 760억 원 / 미화 2,200억 달러³
- > **본사:** 대한민국 서울
- > **주주:** 한국 정부(100%). 지분은 기획재정부가 91.71%로 가장 크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7.60%와 0.69%로 소수 지분을 갖고 있음. 하지만 KDB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소속됨.
- > **중요한 순간과 결정 임박**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기후 변화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을 것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고 환경부가 2020년 한국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갱신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 전략을 합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현안임.

지표	요약
중요한 기후 전략	파리협약 미준수 - KDB 산업은행은 독자적인 기후 전략은 없지만 기후 변화를 중요한 자사 전략에 대한 “도전” 으로 인식하고 있음.
주요 부문별 전략에서 기후 완화 및 회복력의 통합	해당 없음 - 부문별 전략에 대한 정보나 증거가 없음. 수소/전기 충전소, 전기차, 대중교통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
기후 관련 자금지원 자료의 투명성	파리협약 미준수 - 프로젝트 수준의 정보가 없으며, 금융 중개기관 하위 프로젝트는 공개되지 않음.
에너지 효율 전략, 기준 및 투자	파리협약 미준수 - KDB 산업은행은 별도의 에너지 효율 지침이 없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 관한 OECD 효율 지침을 준수함.
화석연료 배제 정책	파리협약 미준수 - KDB 산업은행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배제하지 않으며, 석탄과 석유 채굴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함

¹ This document is a translation of one section of E3G’s major report “Banking on Asia”, published in October 2019, which summarises the findings for Korea Development Bank. The report is an assessment of the level of alignment with the Paris Agreement at ADB, AIIB, CDB, KDB, JICA and the World Bank Group.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the full 150 page English language report contains a detailed chapter for each of the 10 indicators in the table above, which in turn contains a section on Korea Development Bank. The full report can be downloaded at www.e3g.org.

² KDB (2017) **2017 년 연례 보고서**, 12 페이지.

³ KDB (2018) **2018 년 연례 보고서**, 3 페이지, 2019 년 9 월 16 일자 금리로 환산.



E3G

	사례가 있음.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신설 석탄 화력발전소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파리협약 미준수 - 프로젝트 또는 포트폴리오 수준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산정은 하지 않음(녹색채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제외). 적도원칙에 가입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증을 받았는데도 그러함.
기후 위험, 회복력 및 적응.	해당 없음 = 공개된 정보 없음.
그린/브라운 에너지 금융과 기후 투자 확대	파리협약 미준수 -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에너지 관련 청정 금융보다 규모가 큼.
파리 목표 이행을 위한 기술 지원	해당 없음 = 공개된 정보 없음.
그린 금융에 대한 홍보	어느 정도 진전 있음 - 그린 금융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녹색채권에 대한 일부 정보만 있음.

- > **파리협약 준수 평가에 대한 요약:** KDB 산업은행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준수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음. 중요한 기후 전략 수립(과 기관 내 기후 변화 전담팀 구성),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산정 및 목표, 화석연료 배제 정책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 **파리협약 준수 프로젝트 사례 연구:** 아랍에미리트연합의 3상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⁴ 800MW 태양광 PV 발전소가 KDB산업은행의 녹색채권 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한 미화 1억 달러의 대출을 받을 예정⁵.
- > **파리협약 미준수 프로젝트 사례 연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의 수라라야 발전 단지에 추가될 신설 석탄 발전소 2곳. 이 두 발전소는 총 발전 용량이 2,000MW, 투입 비용이 미화 16억 7천만 달러로 예상됨⁶.
- > **권고 사항:**
 - KDB산업은행은 독자적인 기후 전략을 수립해야 함.
 - KDB산업은행은 석탄에 대한 화석연료 배제를 실시한 다음 이 정책을 석유와 천연가스 프로젝트로도 확대해야 함.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석탄 화력

⁴ EDF Renewables(2017 년) **800MW 3 상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태양광 발전소는 재원조달 종결**

⁵ Sustainalytics(2017 년) **KDB 산업은행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개요와 2 차 의견**, 9 페이지.

⁶ Asia Times(2018 년) **한국 은행들에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E3G

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이 없으며, KDB산업은행도 한국 내 석탄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음.

- KDB산업은행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해 프로젝트 수준의 자료와 포트폴리오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해야 함. KDB산업은행이 약속한 적도원칙과 보조를 맞추어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공표해야 함.
 - KDB산업은행(또는 해당될 경우 한국 정부)은 국내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명시적 권한으로 삼는 “한국 그린뱅크” 기관의 신설을 고려해야 함.
- > **리더십 분야:** KDB산업은행은 국제금융공사(IFC)의 환경, 사회 및 인권 기준에 근거한 적도원칙에 가입하여 이 보고서에서 평가를 받은 유일한 은행임. KDB산업은행은 2016년에 GCF의 인증을 받은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곧 GCF에 일부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